

반려견, 주인 슬픔 이해하고 위로한다

개는 오랜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과 공감하는 탁월한 능력을 진화시켰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상태를 구분하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미국 리펀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개는 주인의 슬픔을 느끼고 주인을 위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34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개의 품종은 다양했으며 나이는 1.5세에서 12세에 걸쳐 있었다.

참가자들은 한 명씩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다. 개는 밖에 있었지만, 문에 커다란 창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훤히 볼 수 있었다. 또 문틀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개가 밀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참가자들 중 반은 15초마다 괴로운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말했다. 15초 동안에는 울음소리를 냈다. 나머지 반은 15초 간격으로 “도와줘!” 라고 말하되 감정을 섞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노래를 흥얼거렸다.

연구진이 반응을 관찰한 결과, 문을 열고 주인에게 달려간 개는 반 정도였다. 주인이 울음소리를 낸 그룹과 노래를 흥얼거린 그룹 사이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개가 주인의 감정을 느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주인이 괴로운 목소리를 낸 경우 개의 반응이 훨씬 빨랐던 것. 주인이 노래를 흥얼거린 그룹은 개가 문을 열기까지 평균 96초가 걸렸지만, 괴로운 목소리로 호소할 그룹은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연구진은 문을 열지 않은 개 주인들도 실망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 주인이 울음소리를 낼 때 개들은 헐떡거리고 끄끙대는 등 명백하게 불안 증상을 보였다. 개들이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통에 문을 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 줄리아 마이어스 매너 교수는 개들 또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성격도, 사랑의 방식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랑스러운 ‘상전’ 고양이와 친해지기

고양이는 개에 비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처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 오죽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주인)을 상전을 모시는 집사라고 부를까!

상전일지언정 가만히 앉아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노라면 만지고 싶어진다.

펫찌(petzi.com)에 따르면 고양이와의 스킨십은 고양이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스킨십을 하면서 탈모가 된 곳은 없는지, 피부병에 걸린 곳은 없는지, 귀에 진드기는 없는지, 만졌을 때 아파하는 특정 부위는 없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치껏, 요령껏 고양이에게 스킨십을 시도해 결과적으로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고양이로 만들어야 한다.

같은 부위를 같은 강도로 마사지해주고 있는데 어제는 골골거렸던 아이가 오늘은 할렐 수도 있고, 내일은 하악질을 할 수도 있다. 언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는 게 고양이 마음이다. 또, 자기가 와서 머리를 비벼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는 건 안 된다. 그저 자기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란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고양이를 오게 하려면 그냥 모른 척 내 일을 하면 됐다. 그러다 보면 고양이가 먼저 다가온다.

고양이와의 스킨십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양이가 원할 때,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만큼만’ 스킨십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반려묘와의 스킨십 TIP

■ 천천히 손을 내밀어요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게 고양이이다. 그런 고양이에게 ‘다가가기’ 는 고양이와 친해지는 첫걸음이다. 먼저, 목소리는 세상 다정하게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고양이와 시선을 마주친다. 고양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눈인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한테도 똑같겠지만 식사 중 그루밍(사람으로 치면 샤워 중이겠다) 중에는 다가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고양이가 눈앞에 있고 눈인사도 했다면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손 냄새를 맡게 한다. 이때, 고양이가 고개를 돌리거나 하악질을 하면 미련 없이 다음 기회를 노리자. 고양이가 손 냄새를 맡고 관심을 보이면 활거나 머리를 비빌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먼저 머리를 쓰



다듬으려고 하면 안 된다. 고양이의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는 만져도 된다. 이때 고양이가 골골송까지 부른다면 성공한 거다.

■ 만지면 좋아해요

고양이는 만져주면 특히 좋아하는 부위가 있다. 하지만 이는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덤석 만졌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이며 각 부위에 따라 어떻게 스킨십을 해주어야 할까?

턱밑은 스스로 그루밍하기 힘든 곳이므로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살살 긁어준다. 이마는 손으로 머리를 빗겨주듯이 쓸어주거나 칫솔을 이용하여 빗겨주면 입을 살짝 벌릴 정도로 무아지경이 된다. 그리고 양쪽 뺨은 두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넘겨주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도록 한다. 등에서 꼬리로 이어지는 지점은 톡톡 두들겨 주거나 손톱으로 긁어주면 좋아한다.

■ 만지면 안 돼요

반대로, 만졌을 때 싫어하는 부위는 어디일까? 고양이는 보통 발바닥, 꼬리, 배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개와는 달리 고양이가 발라당 누웠을 때는 배를 만져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그런 것이니 오해하지 말자. 고양이가 발라당 누워있을 때 잘못 걸리면 ‘토끼발(뒷발로 팡팡 차는 것)’ 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발톱을 잘라준 고양이라면 괜찮지만 발톱이 뾰족한 상태에서 토끼발을 당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 ‘나만 없어 무릎냥이’

반려인의 무릎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무릎에 앉는 것을 단 한 순간도 못 버티는 고양이도 있다.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사회화 과정이 큰 이유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의 무릎에 올라오는 버릇을 들인 고양이가 무릎냥이로 자랄 확률이 높다.

사람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고양이의 경우에는 사람과 스킨십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 고양이를 억지로 무릎에 앉혔다가는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다. 고양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나중에라도 편한 마음으로 무릎을 찾을 수 있다.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온다면 최대한 부드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도록 한다. 너무 오랫동안 쓰다듬는다면 귀찮아할 수도 있으니 고양이의 기분을 봐가면서 적당히 스킨십하는 것이 포인트다. ‘무릎 위는 따끈하고 행복한 핫스팟’ 이라고 인지하도록 하자.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